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함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8월 2일) 2021년 9월 8일 수요일




한국 대표 선승인 고우 대종사의 영결식이 9월 2일 봉암사서 엄수됐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 '禪僧' 고우 대종사 적멸에 들다

## 8월 29일 종립선원 봉암사서 원적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거행**
**9월 2일 봉암사에서 영결식**
**전국 대표 선승들 대거 운집**
**"수행자의 사표였던 선지식"**
**중도 법문으로 대중 회향도**

문경 봉암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명예원로 은암당 고우 대종사가 8월 29일 영원한 적멸의 세계에 들었다. 세수 85세, 법납 60세. 고우 대종사는 한평생 수행자로 살며 깨달음의 가치를 대중에게 회향했던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이다. 수행자들의 사표로 폭넓은 존경을 받았던 만큼, 스님의 마지막 길에는 생전 가르침을 기억하는 전국의 수좌들이 운집했다.

은암당 고우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9월 2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에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치러졌다. 한평생 수행자로 살아간 스님의 원적에 대한 최고의 예우인 만큼, 장의위원회도 전국 선원을 이끄는 대표 선승들로 구성됐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증명을 맡은 가운데,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이 장의위원장을,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영진 스님과 일오 스님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도위원과 장의위원으로 종단과 수좌계 대표 스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영결식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종 5타로 시작됐다.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이 고우 대종사의 행장을 통해 생전 행적을 되짚었고, 이어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의 영결사를 시작으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각계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원행 스님은 "고우 대종사는 일평생 산중 수행을 최고의 복락으로 여기며 살았던 산인이었지만, 종단과 대중의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외면하지 않는 자비행을 베풀어 주셨다"며 "10.27법난으로 종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만한 수습과 종단 안정에 진력을 다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원근을 마다않고 종도들에게 간화선 법문을 펼쳐주셨다"고 회고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이었던 만큼, 이날 영결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장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대인방역을 위한 버스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영결식을 하루 앞둔 9월 1일 전국선원수좌회장 장의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우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고 수행자로서의 삶과 가르침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고우 대종사는 모든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수행자였다"며 "봉암사 태고선원을 현재 1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도량으로 일궈낸 주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은 "고우 대종사는 수행자의 길을 몸소 보여준 선승"이라며 "이미 경계를 넘어선 수행자였기에 세간에서 기대하는 일화는 많지 않다. 그나마 기억나는 일화 역시 모두 수행자 그 자체로서의 모습"이라고 상찬했다.

조계종 명예원로인 고우 대종사의 장례는 종단 관례상 원로회의장으로 진행돼야 하나, 이례적으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결정된 계기도 명확히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은 "명예원로셨기에 원로회의장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생전에 당신이 당부하셨고 후학들도 이를 원했기에 종단과 논의를 통해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거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우 대종사는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으로 손꼽힌다. 1962년 김천 수도암에서 출가한 후 한평생 수좌로서 정진했다.

2002년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장 소임을 맡아 대중들을 직접 이끌며 가행정진 결사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에도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해 화두참선의 대중화에 한 획을 그었다.

한편 고우 스님의 초재는 9월 4일 오전 10시 봉암사에서 거행된다. 2재는 9월 11일 금봉암에서, 3재는 9월 18일 석종사에서, 4재는 9월 25일 공주 학림사에서, 5재는 10월 2일 축서사에서, 6재는 10월 9일 고양 흥국사에서, 마지막 49재는 봉암사로 이어진다. 〈추모특집 4 · 5면〉

# 군승 수급 '빨간불' 교구할당제로 돌파

##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제도 개선 추진

**내년부터 군승 자원 고갈**
**각 교구당 2명 추천 추진**
**3일 본사주지협서 요청도**

올해 군승 파송이 미달된 가운데 군종특별교구가 교구할당제 도입 등 군승 수급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계종 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9월 1일 "군승 수급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구할당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불교 일선에서 포교활동에 임하는 군승은 불교군종장교 중 하나로 2010년 불교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군종장교 독신 예외 종헌 조항 삭제 이후 독신비구승 정체성이 강화되며 불교군종장교, 혹은 군종법사에서 군승으로 불리고 있다.

불교군종장교 선발은 군종사관후보생과 군종요원 2가지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에서 사관후보생을 모집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보다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군종요원 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국방부 1.3배수 추천 요구

조계종 군승 파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0명에서 최대 19명까지 국방부의 파송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인원을 추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국방부 군승파송 요구인원인 20명에 3명 부족한 17명이 추천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추천된 인원은 국방부 최종선발 절차를 거쳐 임관 · 파송된다.

군승 파송은 군장병들의 심리상담 등 군내 종교활동 다변화로 파송 요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0명에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관 예상 인원은 총 60명에 달한다. 여기에 국방부 최종선발 과정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로 인한 불합격 사례의 증가로, 국방부는 1.3배수 인원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군종특별교구가 제도 개선 등 수급 현안 해결에 나선 이유는 미달된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의 예비군승 자원이 고갈 상태기 때문이다. 임관 예정 60명 중 현재 확보된 예비군승은 12명에 불과하다.

### 기독교는 5대 1 경쟁

불교계가 군승 수급에 헐떡이는 동안 이웃 종교계는 높은 경쟁률로 우수 자원을 파송하고 있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기독교계의 경우 5:1에 달하는 경쟁률을 자랑한다. 경쟁률이 높아 우수한 재원을 선발하고 군종장교 정원 도 확대하고 있다"며 "불교가 지속적으로 계획 인원에 미달할 시 원불교와 타종교의 군종장교 진입 · 확대 요구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예비군승 자원의 부족현상은 출가자 감소와 고령 출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비군승 응시자격은 현재 조계종 사미 · 사미니계 승적을 소지한 스님이면서 4년제 대학 졸업 및 동등 학력을 소지하고,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는 스님이어야 한다. 장교 선발 기준 준수와 함께 고령임관의 경우 군 적응과 장기복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부 고령화와 성직자 감소 등 불교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톨릭의 경우 교구당 할당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군종장교 퇴직시 파송한 교구에서 결원을 충족하고, 신규 파송인원 발생시 협의 하에 각 교구로 파송인원을 할당하는 체제다. 파송인원의 경력 또한 소속교구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9월 10일 예비군승 응시 1차 서류 접수와 함께 10월 말 2차 서류접수가 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상황을 공유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스님 2명 이상을 추천받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종특별교구는 군포교 역점 사업인 호국 홍제사 불사가 8월 27일 기준 20% 공정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2022년 6월까지로 최근 내부장엄과 성보조성 등이 계획에 추가되며 대웅보전 불사총액이 100억원 규모로 증가한 상태다.

군종특별교구는 군불교후원기금 조성 등 후원 활성화를 통해 거점불사와 군승 처우개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9월 둘째주 중 육해공군 부교구장을 비롯한 국장단 임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관련 세부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 | 1일차 (9월 8일, 수) | 2일차 (9월 9일, 목) | 3일차 (9월 10일, 금) |
|---|---|---|---|
| 09:00~12:00 | |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 마음과 과학 특강 |
| 14:00~17:00 |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 현대인을 위한 포교 | |
| 18:30~20:30 |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 |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